

##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알레고리적 재현과 도상적 요소의 형성\*

정 승 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6세기 후반 ‘4대륙 알레고리’의 일부로서 등장한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초기 재현 양상과 도상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570년 오르텔리우스의 『세계의 무대』에 등장한 의인화된 아메리카의 모습을 시작으로 총 9점의 초기 아메리카 알레고리 작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도상적 요소를 ‘나체와 신체 장식’, ‘식인과 생활상’, ‘자연과 동식물’의 세 범주로 나누어 고찰한다. 그 결과, 아메리카 알레고리를 규정하는 핵심 도상적 특징은 나체의 표현과 식인 모티프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원주민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기보다는 아메리카를 야만의 영역에 두기 위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난다. 4대륙 알레고리는 아메리카의 등장으로 확장된 세계에서 유럽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새로이 제시하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아메리카 알레고리는 이러한 4대륙 알레고리 체계의 일부로서 처음 등장한 이후 3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주제어 : 영토의 의인화, 신대륙, 4대륙 알레고리, 아메리카 알레고리, 체사레 리파

\* 본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5C2A02022687).

## I. 서론

1492년 콜럼버스 항해 이후 신대륙 아메리카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땅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 부분으로 분할하던 고대 이래의 지리관은 변화를 맞게 된다. 아메리카가 네 번째 대륙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자, 16세기 후반에는 네 대륙을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4대륙 알레고리’ 모티프가 만들어졌다. 본 연구는 4대륙 알레고리 중 아메리카에 주목하여 이 예술적 모티프의 초기 형성과 도상적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땅과 영토를 여성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것은 고대 세계, 특히 로마 제국에서 속주나 정복한 땅을 두고 동전을 만들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였다. 4대륙 알레고리 형식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러한 의인화 알레고리의 전통을 점검한 뒤, 신대륙이 아메리카로 명명되면서 4대륙 알레고리 모티프가 형성될 수 있었던 맥락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최초의 4대륙 알레고리로 여겨지는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첩 속 판화(1570)를 시작으로 바레세, 들론, 스트라다누스, 데 보스, 갈레, 데 파세, 헤라르츠 등의 작품을 아메리카 알레고리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작품에 나타나는 도상적인 특징을 나체와 신체 장식, 식인과 생활상, 자연과 동식물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콜럼버스 1차 항해 기록을 중심으로 베스푸치, 마페이,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 드 레리, 가스파르 카르바할 등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의 연대기, 여행기, 보고서 기록을 활용해 분석에 구체성을 더하고자 한다.

아메리카 알레고리 작품은 제작 지역이나 매체, 그 시기가 매우 방대하다. 16세기 말 지도의 장식, 판화, 회화 등 평면 작품으로 등장한 이후 병풍, 부조, 조상, 건물 내벽의 장식, 도자기 등 입체적인 작품의 모티프로도 확장되었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나 한국에서는 물질이나 영토,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하여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전통이 없다 보니 이를 주제로 포착하기 쉽지 않고, 지역, 역사, 미술사적 주제로 아직 거의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sup>1)</sup> 이 글을 통해 오랜 의인화 알레고리 전통 속에 아메리카 알레고리와 4대륙 알레고리 모티프가 생겨났음을 설명하고, 초기 형성기의 주요한 작품들이 무엇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지 도상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밝힐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실제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과 자연의 온전한 특징을 담기보다는 4대륙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내고 아메리카를 야만에 더 가까이 위치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과장되었음을 드러내고, 전형화된 아메리카 알레고리가 수 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신대륙에 대한 상상의 풍경을 구성하였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유럽의 의인화 알레고리 전통과 아메리카 대륙의 등장

### 1. 땅에 대한 의인화 알레고리

땅을 여성이나 어머니 대지로 간주하는 것은 농경사회를 거치며 갖게 된 보편적인 인간의 심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지역에 존재하는 대지모 사상이나 이를 표현한 고대 세계의 작은 여성 조각상들은 이러한 심성을 잘 보여준다. 로마 제국에서는 정복한 땅이나 속주를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확고하였다.<sup>2)</sup> 고

1) 관련 국내 연구로는 유럽 알레고리의 등장과 4대륙 알레고리가 지닌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분석한 윤비(2010; 2014)의 글이 있으며, 서구의 시각적 질서와 식민주의적 상상력이 아메리카를 구성해온 방식을 분석한 모라냐(2021)의 글이 번역되었다.

2) 일레르 튀르키예의 아프로디시아스 박물관에 전시된 부조인 「클라우디우스와 브리타니아」(Claudius and Britannia)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여성으로 의인화된 브리타니아에 일격을 가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https://turkisharchaeonews.net/museum/aphrodisias-museum> (검색일: 2026. 8. 15.)

대 그리스에도 존재했던, 여러 신들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감각이 땅과 영토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로마 제국의 영토는 그리스보다 훨씬 광대하였으므로 이러한 시각적 표현이 훨씬 다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상, 부조 외에도 돌에 새기는 것이 흔하였고, 속주 알레고리를 새긴 동전 역시 많이 제작되어 오늘날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상 동전을 제작할 때 앞면은 통치하는 황제의 옆얼굴, 뒷면은 그가 통치하는 땅을 알레고리적으로 여성화하여 담은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황제(제위 117-138)는 제국 전역을 직접 여행한 뒤 제국의 영토와 속주를 각기 다른 도상적 속성<sup>3)</sup>을 지닌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새긴 금화와 은화를 대량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 하드리아누스  
통치기 주조된 금화의 뒷면.  
히스파니아 알레고리.

하드리아누스 시기 한 금화(130-133년경)는 속주를 의인화하여 알레고리로 표현한 전형을 잘 보여준다. 히스파니아는 옷을 입은 채 앉아 있고 오른손에는 올리브 나무로 추정되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으며, 주위에는 히스파니아에 많이 서식하였던 토끼를 배치하였다.<sup>4)</sup> 동전 뒷면에 히스파니아가 묘사된 패턴은 이후 4대륙 알레고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영토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동식물을 배

치하는 것은 4대륙 알레고리의 특징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의 땅이나 속주로서가 아니라 대륙으로서 알레고리화되어 처음 등장한 것은 유럽이었다.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 기독교 세계의 중부와 동부 지역이 강력하게 위협받던 시기, 유럽, 유럽인이라는 의식이

3) 본고에서 사용하는 도상적 속성(attribute)은 특정 인물이나 의인화된 대상을 식별하게 하는 동물, 식물, 사물 등의 시각적 표지를 의미한다.

4) Numista, “Aureus - Hadrian HISPANIA; Hispania,” <https://en.numista.com/256013> (검색일: 2026. 08. 10.)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교도 아시아와 신대륙 발견을 통한 해상 진출로 타 대륙과의 문화적 접촉이 폭발한 시기로서 유럽인들이 문화적 단일체에 속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윤비 2010:25-26). 이를 최초로 시각적으로 의인화한 것은 16세기 전반으로, 여인의 모습이나 여왕의 모습을 한 유럽의 이미지가 책의 표지와 삽화, 지도의 장식, 교회와 궁전의 천정화와 조각 장식에 이르기까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1537년 요하네스 푸취(Johannes Putsch)가 그린 유럽 지도는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를 최초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이렇게 유럽 여제(Europa Regina), 처녀 유럽(Europa Virgo)의 이미지는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대표적인 상징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윤비 2010:26, 31).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로마 제국 시기 로마의 속주로 알레고리화되어 동전이나 조상, 부조 등으로 만들어졌지만 콜럼버스 이후 유럽에 아메리카 대륙이 알려짐으로써 16세기 말 4대륙을 구성하며 새로운 맥락으로 재등장하게 된다.

## 2. 3대륙 분할의 전통과 아메리카의 등장

인간이 사는 땅을 세 개로 나누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계를 인식하던 방식이었다. 그들은 인간이 살고 있고 인간에게 알려진 땅을 외쿠메네(Oikumene)로 규정하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땅을 에우로파, 아시아, 리비아[아프리카]로 나누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을 오케아노스(Okeanos)로 보았다. 대륙이라는 단어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세계의 부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세계의 세 부분을 구성한다고 여겨졌다.<sup>5)</sup>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5) 세계를 삼분할하여 인식한 고대 그리스의 지리관을 이어받은 로마제국에서 ‘세계의 부분들’(Partes Orbis), 혹은 세계의 세 부분들(Tres Partes Orbi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중세에도 이러한 삼분할 인식은 공고히 이어졌으며, 이것이 콜럼버스가 새로운 땅에 도달해서도 그곳을 아시아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발트제멜러는 이러한 구도를 깨고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세계의 네 번째 부

세 대륙을 성서의 인물과 인종과도 결부시켜 T-O지도 속에서 셈(Sem)은 아시아, 야벳(Iafeth)은 유럽, 함(Cham)은 리비아로 가서 뿌리를 내린 것으로 보았고(그라탈루 2010:55-57), 예수를 알현하러 온 동방의 현자들도 처음에는 특정되지 않았으나 점차 그 이름과 숫자가 정해지게 되어 멜키오르는 유럽, 가스파르는 아시아, 발타사르는 아프리카를 상징하게 되어 3대륙과 결부된다.

중세에 인디아스(Indias)<sup>6)</sup>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동방에 도달하기 위해 대서양으로 항해한 콜럼버스는 1492년 1차 항해에서 실제로는 카리브해의 크고 작은 섬들을 탐사하였으나 인디아스에 다녀왔다고 확신하였다. 스페인 왕실은 1499년 5월 알론소 데 오헤다를 선장으로 하는 대양 항해를 추진하였고, 이 항해에 피렌체 출신의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가 승선하게 된다. 이후 베스푸치는 1501-02년에 포르투갈 왕실이 파견한 탐험대에 참여하여 오늘날 브라질 해안 지역을 항해하였고, 이 항해에 대해 메디치 가의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에게 보낸 편지가 1503년 「신세계(Mundus Novus)」라는 제목의 소책자로 라틴어로 출간된다. 이 편지는 신세계와 신대륙의 개념을 최초로 담고 있으며, 당대에 널리 읽히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새 나라는 신세계라고 불러야 합당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혀 모르던 나라이고, 또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고대인의 견해는 거짓이며, 진실에 완전히 반합니다. 저는 최근 여행에서 이를 확

---

분(alia quarta pars)을 발견했다며 이를 아메리카로 부를 것을 제안한 뒤 “그래서 이제 땅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 인식된다(Hunc in modum terra iam quadripartita cognoscitur)”고 선언한다(Waldseemüller 1907:XXX); 영어권 국가에서는 18세기부터 대륙(continent)이라는 표현을 선호해온 반면, 프랑스 지리학에서는 19세기까지도 세계의 부분(parties du monde)이라는 표현을 엄격히 사용하였다(그라탈루 2010:19-20).

- 6) 서유럽에서 중세 이후 동방을 2개, 3개로 나누는 관행이 생겨나게 되어 인디아(India)의 복수 인디아스(Indias)가 동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했습니다. 이 남쪽 부분에서 저는 대륙을 발견했으며 [...] (베스푸치 2017:107-109).

이에 마르틴 발트제뮐러와 마티아스 링만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을 보강한 『우주지 서설(Cosmographiae Introductio)』(1507)을 펴내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 네 번째 대륙의 이름을 아메리카로 할 것을 제안하고, 벽걸이용 대형 지도인 「우주지(Universalis Cosmographia)」도 제작하여 ‘America’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지도에 인쇄하게 된다.

이제 이 지역들[아시아]도 더 넓게 탐사되었고, 세계의 네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발견되었다. 영민한 재능의 소유자이자 발견자인 아메리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고의 땅이라는 뜻의 아메리게(Amerige), 혹은 아메리카(America)로 부르는 것을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내는 찾을 수 없다. 유럽과 아시아가 여성의 이름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이다 (Waldseemüller 1907:XXX).

이후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독일어권의 지도제작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에우로파, 아시아, 아프리카처럼 여성형 이름으로 고안된 아메리카는 대륙의 이름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갔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라는 세계의 세 부분에 신대륙 아메리카가 더해지자 이 세 부분과 함께 아메리카를 시각적으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름을 여성형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땅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던 고대로부터의 관습도 자연스럽게 적용되면서 4대륙 알레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Ⅲ. 4대륙 알레고리 속 아메리카

#### 1. 대표적인 초기 아메리카 알레고리

1537년 푸취의 작품 이후 유럽 알레고리가 여왕 유럽, 처녀 유럽 모습의 알레고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6세기 말에는 거의 동시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알레고리가 출현하여 4대륙 알레고리 연작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4대륙 알레고리는 수세기 동안 시각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졌으나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판화와 회화 등 평면적인 작업이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9개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중 유일하게 스트라다누스의 것만 단독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4대륙 알레고리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다.<sup>7)</sup>

최초의 4대륙 알레고리이자 아메리카 알레고리가 제시된 것은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가 기획한 지도첩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rarum)』를 통해서이다. 이 지도첩은 당시 세계에 대한 서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총망라한 것으로, 1570년 초판에는 53개의 지도가 수록되었으며, 1598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보판이 나오며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sup>8)</sup> 책의 속표지 한 장에 4대륙 알레고리가 함께 수록되어 있어 본문에서 개별 지도들이 제시할 세계의 모습을 종합하고 있다.<sup>9)</sup> 이 4대륙 알레고리는 마르텐 데 보스(Maerten de Vos)

7) 9점의 아메리카 알레고리에 대해서는 작품별 귀속 기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벽면 회화 1점은 실제 제작자인 바레세의 이름으로 표기하였고, 판화 7점은 원안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다만 『세계의 무대』 속표지 판화는 책 전체를 기획한 오르텔리우스의 이름을 적용하였다.

8) Library of Congress, “Theater of the World,” <https://www.loc.gov/item/2021666800/> (검색일: 2026. 08. 15.)

9) Wikimedia Commons, “Theatrum Orbis Terrarum Frontpag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atrum\\_Orbis\\_Terrarum\\_Frontpage.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atrum_Orbis_Terrarum_Frontpage.jpg) (검색일: 2026. 08. 30.)



그림 2. 『세계의 무대』 속표지 속  
4대륙 알레고리

가 원안을 그리고 프란스 호겐베르흐(Frans Hogenberg)가 동판을 제작하였으며, 고대 신전인 에디쿨라 구조에 4대륙 알레고리가 상하좌우로 배치된 모습이다. 상단에 왕관을 쓴 유럽이 위치하고, 왼쪽에 향로를 든 아시아, 오른쪽에는 솔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꽃을 든 곱슬머리의 아프리카가 있으며, 하단에는 아메리카가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다. 아메리카는 머리에 이구나, 혹은 악어로 보이는 파충류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으며,<sup>10)</sup> 오른손으로는 창을 쥐고, 왼손은 수염이 난 것으로 보아 유럽인으로 보이는 남자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다.<sup>11)</sup> 다리 사이에는 활과 화살

- 10) 아메리카 알레고리에서 파충류 가죽을 뒤집어쓴 모습은 다음과 같은 고전적 도상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에서 동물 가죽을 뒤집어쓴 도상의 대표적 사례는 레온테(leonte)를 쓴 헤라클레스의 모습이다. 헤라클레스가 네 메아의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뒤 그 사자의 가죽을 걸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인디아 원정과 코끼리가 결부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알렉산드로스가 코끼리 머리 가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은화에 담았으며, 코끼리는 알렉산드리아, 더 나아가 아프리카 영토의 상징이나 알레고리의 도상적 속성으로 종종 등장한다.
- 11) 하단의 아메리카가 잘린 사람 머리를 들고 있는 반면, 대칭되는 최상단에 위치한 유럽의 옆에는 십자가가 달린 지구본이 있다. 원과 구는 세계와 우주를 의미하며 그것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주피터나 황제의 손에 들린 모습이나 옆에 놓인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었으며, 교회 예술로 와서는 신과 예수가 이를 들고 있거나 옆에 배치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십자가와 결합하게 된 구는 5세기 이후 황제의 보편 지배를 상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윤비 2014:284-285). 식인을 의미하는 잘린 ‘둥근’ 머리는 유럽의 옆에 놓인 ‘둥근’ 지구본과 대칭을 이룬다. 상단과 하단의 대칭 속에 최고의 지배권과 야만과 동의어인 식인이 대비되는 구도이다.

이 있고, 오른 다리에는 깃털 장식을 달고 있으며, 뒤쪽 배경에는 해먹이 걸려 있다. 4대륙 알레고리의 균형을 살짝 깨는 요소이자 아메리카의 연장(延長)인 듯 그 오른쪽에는 여성의 흉상이 놓여있는데, 이는 마젤라니카(Magellanica)이다. 마젤란의 땅이라는 뜻이며, 1519년 항해에서 마젤란이 도달한 남아메리카의 남단을 고대 세계에서부터 존재한다고 여겨진 미지의 남방대륙(Terra Australis Incognita)과 결부시켜 18세기 말까지 사용되던 이름이다. 흉상 아래에 붙어 그려진 것은 원주민들이 불을 지피곤 하던 데서 불의 땅, 즉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라는 이름을 갖게 된 섬과 그곳에서의 일화를 표현한 것이다. 아직 극히 일부 지역만 탐사된 상태였으므로 여성의 몸 전체가 아니라 상반신만 그려두었다.<sup>12)</sup>

로마 근교 카프라롤라에 위치한 빌라 파르네세(Villa Farnese)의 ‘지도의 방’ 네 벽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지도가 그려져 있으며, 방의 안쪽 면에 그려진 세계 전도의 네 모퉁이에 4대륙 알레고리가 배치되어 있다. 알렉산드로 파르네세(Alessandro Farnese) 추기경의 주문으로 지오반니 안토니오 다 바레세(Giovanni Antonio Da Varese)가 그린 것이다.<sup>13)</sup> 먼저 벽면에 그려진 세계지도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상당히 정확한 윤곽을 갖추고 있으나 남아메리카의 남단 끝과 북아메리카의 서쪽 끝의 처리는 아직 불확실하다. 남아메리카의 남단은 미지의 남방대륙으로 그려져 있으며, 북아메리카의 서쪽은 아시아와 연

12) 책의 도입부 설명에 따르면, 오르텔리우스는 세계를 구대륙, 아메리카, 마젤라니카로 나누는 메르카토르식 분할을 따르고 있다. 구대륙은 이미 세 부분, 즉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나뉘어져 있고, 아메리카는 서인디아스로도 불리며, 마젤라니카는 남쪽 대륙(terram Australem)이다(Ortelius 1570). 남쪽 대륙이란 고대로부터 남반구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진 ‘미지의 남방대륙’을 말하며, 19세기에 남반구로 탐사가 더 진행되면서 이 거대한 상상의 땅덩어리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의 이름으로 남았다.

13) Wikimedia Commons, “File:World map - Room of Maps - Villa Farnese - Caprarola, Italy - DSC02398.jpg,”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rld\\_map\\_-\\_Room\\_of\\_Maps\\_-\\_Villa\\_Farnese\\_-\\_Caprarola,\\_Italy\\_-\\_DSC02398.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rld_map_-_Room_of_Maps_-_Villa_Farnese_-_Caprarola,_Italy_-_DSC02398.jpg) (검색일: 2026. 08. 10.)

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으므로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 세계지도 외곽에 4대륙 알레고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지도의 방 세계지도와 4대륙 알레고리(1573-1575).  
왼쪽 상단이 아메리카이다.

유럽은 성곽 모양의 왕관을 쓰고 칼집에 꽂힌 검과 구를 들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약간 어두운 피부색에 머리카락은 검은 머리 코끼리 머리 가죽을 쓰고 있다. 아시아는 성곽 모양의 왕관을 쓰고 금 항아리와 닢을 들고 있다. 아메리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도상적 요소가 없었으므로 아직 그 표현이 불안정하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알레고리에서 종종 사용되던 풍요의 뿔(Cornucopia)을 갖고 있으나 고대의 도상학에서 풍성하게 과일이 담겨있던 것과 달리 뿔에서 금화와 은화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금과 은으로 제시되는 아메리카 대륙의 엄청난 부를 상당히 직설적으로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는 화려한 장신구를 많이 걸치고 있고, 왼손 아래 반구에는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그려져 있으며, 샌들을 신은 발치에는 앵무새가 자리하고 있다(Partridge 1995:414-415, 440-441).

에티엔 들론(Étienne Delaune) 역시 4대륙 알레고리에 입각한 작은 타원형 동판화 시리즈(1575)를 남겼으며, 이는 금속공예가였던 들론이 장



그림 4. 에티엔 들론의  
동판화 아메리카(Americca)

식으로 새겨 넣기 위한 패턴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7.2 × 8.8 cm의 매우 작은 동판화이며, 아메리카는 ‘Americca’로 오기되어 있다.<sup>14)</sup> 벌거벗은 아메리카는 등을 지고 앉아 있으며,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다. 머리에는 깃털관을 쓰고 있으며, 왼손에는 화살을 쥐고 주변에는 활과 창이 놓여

있다. 오른팔 쪽에는 아랫니가 발달하여 맹수처럼 보이거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둔 한 짐승이 묘사되어 있는데, 아메리카의 유대류인 주머니쥐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주머니쥐와 달리 체구가 크고 맹수에 가까운 모습이다.

들론이 제작한 유럽 알레고리를 보면, 상반신은 나체이기는 하지만 옷을 입고 황소 등에 기대어 앉아있으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오른손에는 올리브 가지인 듯 보이는 것을 들고 있다. 동물로는 말, 사슴, 황소, 염소, 개가 있고, 식물군은 조화로워 보이며, 발치에는 정교한 도자기 물병이 장식되어 있어 문명적인 요소가 드물어 빈약해 보이는 아메리카 알레고리와 대조를 이룬다.<sup>15)</sup>

16세기 중반 이후 안트베르펜은 판화와 인쇄술이 발달하고 집약된 곳으로서 신대륙에 대한 지리적 탐험의 결과가 시각 예술 상품으로 생산되어 집중적으로 유통되었으며, 앞으로 다루게 될 아메리카 알레고리 판화의 대부분도 이곳 네트워크와 스트라다누스, 데 보스, 갈레 등을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14)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749585> (검색일: 2026. 08. 15.)

15) Victoria and Albert Museum, “Europe,” <https://collections.vam.ac.uk/item/O628622/europe-print-etienne-delaune/> (검색일: 2026. 08. 15.)

요하네스 스트라다누스(Johannes Stradanus)의 작품은 아메리카의 초기 알레고리적 재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의 하나이다. 스트라다누스는 당대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을 선별하여 판화로 제작하고자 하였으며, 필립스 갈레(Philips Galle)가 이를 안트베르펜에서 『새로운 발견(Nova reperta)』(ca.1591)이라는 판화집으로 출판하였다. 여기서 아메리카는 4대륙 알레고리 연작의 하나가 아니라 단독 주제로서 첫 번째 판화로 등장하며, 그 뒤를 나침반, 화약, 활자 인쇄술, 올리브유 압착기 등 18개의 발명이 뒤를 잇는다. 콜럼버스 이후 여러 스페인인들이 카리브해와 남아메리카 대서양 해안까지 탐사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대륙이 명명되었으므로 아메리카의 땅을 처음 조우한



그림 5. 스트라다누스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원화 드로잉(ca.1587-1589)

사람이 마치 아메리고 베스푸치인 듯 그려져 있고, 베스푸치는 자신의 이름을 받은 한 벌거벗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 아메리카는 깃털 머리 장식과 깃털 치마를 착용하고 해먹에 앉아 있으며, 곤봉은 나무에 걸쳐져 있다. 곤봉 위로 나무늘보가 있으며, 곤봉 왼쪽에는 개미핥기가 먹이를 먹고 있다. 아

메리카 뒤편으로는 돼지와 개를 닮은 포유동물 두 종이 있으며,<sup>16)</sup> 식물의 묘사에 있어서도 개미핥기 근처로 다채로운 식물상을 그려두었다. 아메리카의 왼손 뒤편에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다리 하나를 불에 굽고 있고, 나머지 다리는 앞쪽으로 널브러져 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유럽식 복식에 망토와 모자를 걸치고 있다. 왼손에 권막대기는 그 끝이 십자가로 마무리 되었으며 깃발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16) 뒷모습이 보이는 돼지같은 동물은 페커리(peccary)나 맥(tapir)일 수도 있으며, 개처럼 보이는 동물은 말 같기도 하다. 신대륙에 개가 있다는 사실은 콜럼버스의 1차 항해 기록 외에도 식민지 기록에 자주 언급되었다.

있고, 오른손에는 아스트롤라베를 들었다.<sup>17)</sup> 해안에는 그를 육지로 데려다준 작은 배의 머리 부분이 그려져 있고, 더 멀리에는 큰 배가 떠 있다. 아메리카가 사용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물품인 해먹, 깃털 장식, 곤봉은 스트라다누스가 메디치 소장품에서 접해보았을 것들이었다. 원안 드로잉의 뒷면에는 스트라다누스가 피에트로 마페이의 『인디아의 역사』(Historiarum Indicarum)』(1588)<sup>18)</sup>에 나오는 아메리카의 토착 동식물 자료를 활용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당시 알레고리를 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알레고리의 이름과 도판이 있고 하단에 라틴어로 설명이나 시를 첨부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발견』에 실린 동판화 하단에는 “아메리쿠스가 아메리카를 드러낸다. 그가 그녀를 한 번 불렀고 그 이후로 그녀는 항상 깨어 있었다(Americen Americus rexitit, & Semel vocavit inde semper excitam)”라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sup>19)</sup>



그림 6. 마르텐 데 보스의  
아메리카 알레고리(a)

마르텐 데 보스(Maerten de Vos)가 원화를 그리고 아드리안 콜라르트(Adriaen Collaert)가 동판을 제작한 판화(1588-1589)인 그림 6의 전면에는 무장을 하고 맹수처럼 크게 그려진 아르마디요를 타고 있는 아메리카가 있다. 이 판화의 라틴어 시 마지막 구절은 “아메리카는 내면으로부터 무시무시한 곤봉을

17) 『새로운 발견』의 18번 판화는 베스푸치가 아스트롤라베로 남십자성을 관측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1번 판화에서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는 남십자성과 남반구의 발견에 대한 알레고리일 수 있다.

18) 이탈리아 예수회 학자인 마페이가 저술한 『인디아의 역사』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인도, 일본, 중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2장은 최초로 브라질에 도착한 카브랄의 항해로 시작해 브라질의 식물과 동물 자원, 음식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Maffei 1605).

19)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43845> (검색일: 2026. 08. 10.)

내민다(Viscera feralem praetendit AMERICA clavam)”에서 원주민들의 호전성과 야만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배경 속 원주민의 모습도 이를 뒷받침한다. 왼쪽 배경의 원주민들은 사람, 혹은 짐승을 사냥하듯 활을 쏘고 있고, 사람 다리로 보이는 것을 굽고 있으며, 오른쪽 배경 두 곳에는 스페인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스페인인들은 갑옷과 투구, 창을 갖추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벌거벗었고 곤봉을 들었다.

아메리카의 무장을 살펴보면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활과 곤봉을 들고 있으며 가슴에 대각선으로 화살통을 고정시키고 있다. 여러 요소들이 고전적인 양식과 원주민적인 표지를 적절히 섞은 것으로 보이는데, 곤봉은 원주민들의 곤봉과 유럽식 무기를 결합한 것 같고, 로마 군인의 갈레아(galea)처럼 보이는 투구에는 깃털 장식 두 개가 있다. 위쪽 깃털은 닭벼슬처럼 솟은 크레스타(cresta)인 듯하고, 투구 뒤쪽은 새의 꼬리처럼 늘어지는 깃털을 배치하였다. 아메리카는 맹수처럼 보이는 아르마디요를 타고 있는데, 4대륙 알레고리에서 낙타를 탄 아시아, 악어를 탄 아프리카와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유순하고 크기가 작은 아르마디요를 크게 확대하였다. 그 외의 동물로는 오른쪽에 앵무새 한 마리와 왼쪽에 양처럼 보이지만 꼬리까지 털이 북슬거리는 상상동물이 그려져 있다.

마르텐 데 보스는 4대륙 알레고리 한 시리즈를 더 도안하였고, 이는 율리우스 골치우스(Julius Goltzius)에 의해 판화로 제작된다.<sup>20)</sup> 콜라르트의 것에 비해 그림이 좀 거칠지만 동일한 요소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으며, 몇몇 새로운 요소들도 배치되었다. 우선 배경으로 원주민들의 사냥, 식인의 장면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아메리카는 하의를 입고 술을 걸치고 있으며, 깃털 장식의 모자를 쓰고 있다. 무기로는 활과 화살, 곤봉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곤봉의 모습은 좀 더 각져 있다. 동물은 작은

20) 콜라르트의 4대륙 연작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제작 연대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 7. 마르텐 데 보스의 아메리카  
알레고리(b)

뒤편에 나무의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한 원주민의 모습이 있다. 파이프로 수액을 모으는 모습이 고무 채취인 듯하다.<sup>21)</sup> 아메리카 알레고리에서 특정 가능한 식물의 모습이나 식량, 혹은 자원으로서의 식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는 매우 예외적이다.



그림 8. 필립스 갈레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아르마디요와 도마뱀을 그려두었다. 4대륙 연작에서 유럽은 말 2마리, 아프리카는 사자 2마리, 아시아는 낙타 2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으므로 역시 구도를 맞추기 위해 아메리카 알레고리에는 자생동물은 아니었던 말 2마리를 가져왔다. 한편, 풍경일 수도, 식물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말 머리

필립스 갈레(Philips Galle)의 아메리카 알레고리는 판화집 『프로스포그라피아(Prospographia)』(ca.1585-1590)의 마지막 알레고리로 수록되어 있다. 의인화 알레고리 모음집인 이 판화집은 철학, 경험, 종교 등 여러 영역에 대한 알레고리를 제시한 후 마지막에 4대륙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순으로 배치하였다. 나체의 아메리카는 깃털 관을 쓰고 있으며, 왼손에는 창, 오른손에는 잘린 남성의 머리를 들고 있다. 바닥에는 활과 화살통, 잘린 왼팔이 있고 그 왼팔은 곤봉을 쥐고 있다. 아메리카의

21)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20218> (검색일: 2026. 08. 15.)

원발 뒤쪽으로 앵무새 한 마리가 있다.

크리스핀 반 데 파세(Crispijn van de Passe the Elder, 1564-1637)가 제작한 아메리카 알레고리는 유독 많은 시각적 요소들을 배치하여 밀도가 높다. 이 작품에서는 식인과 동물상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뒷배경의



그림 9. 데 파세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세 원주민 무리는 전투나 사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며, 깃털관을 쓴 남성이 아메리카에게 잘린 머리 세 개를 공물로 바치고 있다. 그 오른쪽에는 사람의 다리와 손, 오리로 보이는 조류의 몸통이 같은 솔에서 꿇고 있다. 통상 아메리카 알레고리에서 식인 모티프를

드러내는 사람의 머리는 유럽인 남성의 머리를 그려두었으나 잘린 머리는 원주민의 모습으로 보여 부족 간 전쟁을 통해 이 사람들을 확보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를 짐작하게 하는 시각적 단서가 하나 있는데 아메리카 오른쪽에 있는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이다. 이는 멕시코인들의 건국 신화의 내용이고, 이를 통해 판화 속 인간 사냥과 식인의 모습은 아스테카인들의 전쟁과 인신공양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물들은 뱀을 물고 있는 독수리 외에도 매우 다양하여 왼쪽부터 살펴보면, 고양이과 동물과 개가 있고, 개의 뒤쪽 나무에는 앵무새와 여러 조류가 있다. 이 고양이과 맹수는 비록 가죽 문양이 정확히 묘사되지는 않았으나 재규어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메리카의 발에는 큰 뱀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독수리가 작은 뱀을 물고 있다. 그림 오른쪽의 꿇고 있는 솔 뒤에는 오리로 보이는 조류와 길쭉한 물새가 묘사되어 있다. 여러 동물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으나 멕시코족 신화 속 뱀을 문 독수리, 재규어를 표현한 듯 보이는 맹수, 앵무새는 아메리카의 동물상을 보여준다.<sup>22)</sup>



그림 10. 마르쿠스 헤라르츠 1세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마르쿠스 헤라르츠 1세(Marcus Gheeraerts I)는 플랑드르 출신의 판화 제작자로 신교도 탄압을 피해 1568년경 영국으로 망명하여 활동하였다. 그가 원안을 그린 4대륙 알레고리는 1590-1600년 사이에 필립스 갈레에 의해 판화로 제작되었다. 이 동판화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에 있는 아메리카는 나체에 천으로 몸의 일부만 가리고 있고, 깃털 머리장식을 쓰고 있다. 왼팔과 오른팔 상단에는 둥근 링을 차고, 무기로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동물로는 앵무새 다섯 마리와 산양이 있고 푸마

로 추정되는 고양이과 동물이 있다. 최하단에는 달팽이 두 마리가 장식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상단에는 전사의 복장을 한 아메리카 원주민 남자가 각각 좌우에 있으며, 하단 중앙에는 날개 달린 남녀 테름(term)<sup>23)</sup>이 단을 떠받치고 있고, 그 왼쪽에 이누이트 남성, 오른쪽에 아이를 업은 이누이트 여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이누이트인들은 1577년 탐험가 마틴 프로비셔(Martin Frobisher)가 캐나다 누나부트의 키키크탈록 지역에서 잉글랜드로 강제로 데려간 칼리초(Kalicho), 아르낙(Arnaq), 누타크(Nutaak)이다.<sup>24)</sup> 이 세 사람은 영국으로 끌려온 그 해에 사망하였으나 헤라르츠는 이들을 직접 보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루카스 데 헤레

22) Rijksmuseum, “Amerika,” <https://www.rijksmuseum.nl/en/collection/object/Amerika--7bcf963a85c76c81a30f73d0c76a0ef7> (검색일: 2026. 08. 20.)

23) 상반신은 인간이나 신화적 존재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구조물을 떠받치는 기둥 형태로 연결된 인물상을 의미한다.

24)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70639> (검색일: 2026. 08. 20.)

(Lucas de Heere), 존 화이트(John White) 등 당대 다른 화가들이 이들을 그려둔 모습을 참조하여 실제 원주민들을 알레고리를 풍성하게 하는 표현의 하나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

## 2.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도상적 요소

### 2.1. 나체와 신체 장식

4대륙 알레고리의 신체적 표현을 보면, 여성의 몸으로 의인화되어 있으므로 그 땅에 사는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 인종들 간의 대비도 담고 있어야 하나 아프리카 알레고리의 짙은 피부색과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정도만 두드러지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의 신체적 차이는 미약한 편이다. 이 알레고리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고전적인 신체의 비율이나 이목구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적 특징 외에도 각 대륙의 알레고리는 고유한 도상적 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만일 낙타가 등장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은 여인이 향료나 풍요의 뿔을 들고 있으면 이를 아시아 알레고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식이다.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신체 표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체는 콜럼버스가 1492년 1차 항해를 했을 때부터 원주민들의 신체에 대해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한 특징의 하나이다. 10월 12일 아침 과나하니섬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모두가 ‘어머니가 낳았을 때처럼’ 벌거벗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낳았을 때처럼 모두 벌거벗은 채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콜럼버스 2022:54-55).” 과나하니섬을 떠나 새로운 섬에 갈 때마다 모두 동일하게 벌거벗었다는 언급은 반복된다.

원주민들에 대한 최초의 시각적 재현에도 나체는 강조되어 있다. 콜럼버스는 1차 항해를 기록한 항해일지 외에도 발견을 알리는 편지를 여러 통 남기는 데, 그중 하나가 1493년에 곧바로 라틴어로 번역되어 바젤에서

인쇄되었으며, 그 인쇄본에는 나체의 원주민들이 부각된 삽화가 첨부되었다(Levenson 1991:237).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최초의 회화적인 재현에서도 원주민들은 모두 벌거벗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화가 핀투리키오(Pinturicchio)에 의뢰하여 그린 「예수의 부활(The Resurrection)」(1494)에는 고개를 들어 부활한 예수를 쳐다보는 로마 병사의 왼쪽에 벌거벗은 인디오 몇 명이 멀리 미세하게 그려져 있다.<sup>25)</sup>

4대륙 알레고리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옷을 입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대부분 옷을 벗고 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문명에서 거리가 멀다는 의미이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면직물을 직조하여 사용하였으나 옷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간혹 여성들이 면천으로 아랫도리를 가리는 정도가 다였다. 16세기 초 스페인의 정복과 탐사가 카리브해를 벗어나 대륙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정교한 옷을 입은 원주민들도 만나게 되나 콜럼버스를 위시해 초기의 만남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나체로 살아가는 원주민’은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며 아메리카 알레고리에서 아랫도리를 천이나 깃털 치마 정도로만 가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고착되었다.<sup>26)</sup>

이들의 나신은 종종 깃털 장식품으로 치장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머리에 쓴 깃털 관이며, 깃털 장식이 된 간단한 아랫도리를 입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쪽이나 양쪽 다리에 깃털이 달린 띠를 장식으로 부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콜럼버스도 인디오들의 깃털 장식이 보편적이고 이러한 깃털을 제공해줄 새와 앵무새가 매우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수가 매우 많았는데 모두 몸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있

25) 이 프레스코화는 알렉산데르 6세의 처소(Borgia Apartment)의 신비의 방에 그려져 있었고, 2006년에 복원되었다. 이에 대한 2012-13년 바티칸의 보고에 의하면, 오염을 제거하자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이 신대륙의 원주민에 대한 최초의 회화적 표현일 수 있다고 하였다(Rubiano 2021:290-292).

26) 18세기 말 미국을 시작으로 히스패닉 아메리카의 각 나라들이 독립을 시작하며 대륙 알레고리는 개별 국가 알레고리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들을 나체로 둘 수는 없었으므로 미국의 알레고리인 콜롬비아(Columbia)를 시작으로 개별 독립 국가의 알레고리는 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었고 어머니 몸에서 나왔을 때처럼 벌거벗었으며, 몇몇은 머리에 깃털관을 쓰거나 깃털 장식을 달았고 모두 투창을 들고 있었다(콜럼버스 2022:132).”

깃털 장식을 한 원주민의 모습은 16세기 초에 시각적으로 재현되기 시작한다. 포르투갈의 화가 바스쿠 페르난데스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Adoração dos Reis Magos)」는 1501년에서 1506년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동방박사 중 흔히 아프리카와 연관 지어졌던 발타사르를 투피남바 원주민의 모습으로 대체하여 그린 것이다.<sup>27)</sup> 이 원주민은 완전히 나체가 아니라 유럽식 복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깃털 왕관과 깃털 목걸이를 하고 오른 손에는 매우 긴 화살을 들고 있어 1500년 포르투갈인들이 최초로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접하게 된 투피남바 원주민에 대한 정보가 재빨리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 거의 빠지지 않는 요소로 활과 화살, 창, 혹은 곤봉 같은 무기류가 있으며, 투구를 쓴 경우도 간혹 있다. 나머지 3대륙 알레고리는 거의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인 아메리카가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창과 활, 곤봉이 원주민들의 무기이기도 했지만 고대 세계에서 내려온 동방의 아마존 여인족에 대한 상상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투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어원의 하나로 고대부터 ‘가슴이 없다(a-mazos)’는 뜻의 그리스어와 연관시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소아시아의 여인족들이 오른쪽 젖가슴을 자르거나 훼손하여 자유롭게 활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왼쪽 젖가슴만으로 딸들을 키워낸다는 전설에 근거한 해석이다. 콜럼버스는 1차 항해 때 타이노 원주민들로부터 마티니노라는 섬에 여인족이 산다고 들었다며 아마존 전설을 그대로 투사해 여인족을 찾기 위해 탐사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1541년 프란시스

27) Google Arts and Culture, “Adoração dos Reis Magos,”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adoration-of-the-magi-vasco-fernandes/ywFz7PTSYwA3oQ?hl=pt-pt> (검색일: 2026. 08. 10.)

코 데 오레야나(Francisco de Orellana)의 탐사를 기록한 도미니코회 수사 가스파르 데 카르바할(Gaspar de Carvajal)이 아마존 여전사의 존재가 사실인 듯 기술하면서<sup>28)</sup> 이후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대서양까지 흐르는 강은 아마존 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Fernández Muñoz 2025:82). 아메리카 알레고리를 만들어낼 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처럼 고대세계에서 내려오던 도상적 요소가 존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동방의 인디아스에 대한 오랜 상상이 신대륙과 겹치게 되면서 동방의 여러 종족들의 특징으로 여겨진 나체, 식인, 여인족의 습속 등이 아메리카를 규정하고 인식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러한 특징들이 상당 부분 도상적 표현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아메리카 알레고리는 벌거벗은 상체에 가슴이 훼손되지 않지만 대각선으로 맨 화살통이 아마존을 연상시키며, 손에는 종종 활과 창, 곤봉을 든 전사의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 2.2. 식인과 생활상

아메리카 원주민을 식인과 연관 짓는 것은 콜럼버스가 타이노 원주민들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카리브, 혹은 카니마, 카니바라고 불리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포악하고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긴 데서 시작되었다(콜럼버스 2022: 115, 184, 212). 이후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포르투갈의 깃발을 달고 1501-1502년 오늘날 브라질과 남아메리카 남부 해안으로 항해하였고, 이 항해에 대해 쓴 편지 「신세계」에서 식인종의 존재에 대해 확인한다. 베스푸치의 편지에

28) 오레야나가 이끄는 부대가 1541년 키토를 출발하여 이듬해 오늘날 브라질의 아마존강 하구까지 탐사한 것을 기록한 책으로, 강의 크기에 압도당하고 원주민 여성 전사들과 대적하게 된 경험을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설과 뒤섞어 신대륙에서 아마존 여인족의 존재를 실재인 양 기술하게 된다. 이 기록은 이후 『아마존 여인족이 사는 곳의 크고 유명한 강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고, 아마존은 강의 이름이자 강 주변의 방대한 지역의 이름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영향을 받아 1505년 요한 프로샤우어(Johann Froschauer)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대륙 식인종의 모습을 최초로 인쇄하였다. 판화에서는 벌거벗은 원주민들이 깃털 장식을 머리와 몸 곳곳에 달고 있으며, 나무로 만든 집의 대들보에는 절단된 사람의 머리와 몸통, 다리가 매달려 있다. 그 아래는 모닥불로 사람 고기를 굽거나 훈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sup>29)</sup>

앞서 살펴본 여러 알레고리에서 식인 모티프는 잘린 사람의 머리로만 암시되기도 했지만 종종 도구 위에 다리나 몸통을 올려 굽고 있는 장면으로도 등장하는데, 이는 원주민들이 생선이나 고기를 얹어 굽거나 훈제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것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는 땅바닥에서 높이를 두고 쌓은 다양한 용도의 나무 구조물을 바르바코아(barbacoa)<sup>30)</sup>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짐승이나 새들로부터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서 감시하도록 만든 구조물(andardio), 칠면조와 사슴고기를 구워먹는 석쇠(parilla)같은 도구, 옥수수를 보관하는 원두막도 포함되었다(Fernández de Oviedo 1851: 265-266, 556). 그는 풍속에 대한 설명을 지속하며 정복자 에르난도 데 소토가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하기 위해 바르바코아를 사용해 훈제 처리한 것을 발견한 일화를 소개한다.

이날 총독[에르난도 데 소토]과 로드리고 란헬이 메스키타, 즉 이  
우상숭배자들의 기도소로 갔고, 몇몇 무덤을 파헤쳐 보니 거기서 바  
르바코아에 구워진 남자들의 시신과 상반신이 있었는데, 상반신과  
복부의 빈 공간, 목, 팔, 다리에는 진주가 가득하였다. 진주를 끄집  
어내자 란헬은 아주 질이 좋은 녹색의 에메랄드 같은 것을 보았고,  
그것을 총독에게 보여주자 매우 기뻐하였다(Fernández de Oviedo  
1851:561).

29) Alida C. Metcalf, "Figure 6.2. Johann Froschauer, Woodcut of South American Indians," <https://acm5.blogs.rice.edu/figure-6-2/> (검색일: 2026. 08. 10.)

30) 타이노어에서 기원한 이 단어는 직화구이 도구나 음식을 뜻하는 스페인어 바르바코아(barbacoa)로 남았고, 이는 영어 바비큐(barbecue)의 직접적인 어원이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시간이 지나며 식인종 이방인에 대한 고대로부터의 고정관념과 식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기록이나 상상과 뒤섞이며 바르바코아 도구에 사람을 조리해서 먹는 시각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아메리카 알레고리에 생활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물품은 해먹이다. 해먹 역시 최초의 기록자는 콜럼버스이다. 그는 1차 항해일지에서 곳곳에 면화가 자라고 이를 활용하여 실을 만들고 면천을 짜서 해먹 등 여러 생활 도구와 여성들의 간단한 옷을 만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많은 알마디아, 즉 카노아가 배에 다가와서 면사로 만든 것들과 그들이 잠 잘 때 쓰는 그물인 해먹을 다른 물건들과 교환했다(콜럼버스 2022:93).”

오르텔리우스 지도첩의 알레고리에는 하단에 아메리카와 마젤라니카가 있고, 뒤편에는 사선으로 짜임을 표현한 천으로 된 해먹이 걸려있다. 좁은 공간에 아메리카를 나타내는 여러 상징물들을 배치해야 했으므로 식인 모티프를 암시하는 남자의 머리, 머리에 쓴 파충류의 가죽, 해먹, 무기가 선택되었다. 또한, 스트라다누스의 그림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여 새로운 땅으로 온 베스푸치의 활동성과 해먹에 앉아 나른하게 방문객을 맞는 수동적인 아메리카의 대비는 매우 인상적이다. 해먹의 존재는 원주민의 생활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나 체사레 리파가 4대륙 알레고리의 속성을 매우 단순하게 정립하다 보니 이후에는 해먹이 등장하는 알레고리는 찾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 여행기와 풍속화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먹이 등장하며, 장 드 레리는 브라질의 투피남바인들이 이니(imi)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다(de Léry 1992:160-161). 이후 해먹은 대서양을 오가는 선원들에 의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발명이자 기여로 여겨졌다.

31) 테오도르 드 브리의 『대항해(Grandes Voyages)』는 아메리카 탐사에 대해 13개의 연작으로 나온 판화집이며, 그 중 3부(1592)는 한스 슈타텐과 브라질을 다루며 식인의 과정들을 다룬 충격적인 판화를 대량으로 담고 있어 아메리카 원주민의 식인과 그 조리법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왜곡된 시각 이미지들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 2.3. 자연과 동식물

아메리카 알레고리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앵무새이다. 앵무새는 남반구에 두루 서식하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인디아의 새로 알려졌고, 콜럼버스가 육지에 도착한 뒤 처음 발견한 동물이 바로 앵무새였다. 그가 앵무새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앵무새를 여러 마리 선물하였으며, 귀환 항해에 이 새들을 배에 실어 스페인 사람들과 가톨릭 공동왕에게 선보이면서 앵무새는 유럽에 소개된 최초의 아메리카의 동물이 되었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앵무새는 아메리카 대륙의 초기 지도에 등장할 정도였고, 남아메리카 지역은 한동안 ‘앵무새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였다.<sup>32)</sup>

앵무새는 구대륙과 신대륙에 공통적으로 존재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인의 관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성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국적인 동물들이 많았고, 주로 연대기, 여행기 작가들의 기록을 통해 알려진 아르마디요, 개미핥기, 악어 등이 아메리카 알레고리에 등장한다. 오르텔리우스의 알레고리에는 아메리카가 이구아나, 혹은 악어로 보이는 파충류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다. 데 보스의 알레고리(그림 6)는 아메리카가 실제 크기보다 매우 크게 확대한 아르마디요를 타고 있는 모습이며, 아르마디요의 시선 맞은편에는 앵무새가 그려져 있다. 들론의 경우에는 머리는 맹수처럼 보이나 몸은 주머니에 새끼를 담은 유대류를 그리고 있는데, 주머니쥐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듯하나 상상동물처럼 그려졌다. 스트라다누스의 경우에는 개미핥기와 나무늘보가 있고, 배경에는 돼지처럼 보이는 동물과 개를 닮은 포유동물이 있다. 양처럼 보이는 동물은 꼬리까지 털이 풍성해 신비롭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몇몇 알레

32) 요하네스 쇠너(Johannes Schöner)가 제작한 1520년 세계지도에는 남아메리카를 부르는 이름이 “아메리카 또는 브라질리아 또는 앵무새의 땅(America Vel Brasilia Sive Papagali Terra)”으로 병기되어 있다. Wikipedia, “Johannes Schöner globe,” [https://en.wikipedia.org/wiki/Johannes\\_Sch%C3%B6ner\\_globe](https://en.wikipedia.org/wiki/Johannes_Sch%C3%B6ner_globe) (검색일: 2026. 08. 31.)

고리에서 상상동물이 등장하는 것은 동물 계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고, 글로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이들과 유럽에서 시각적으로 이를 재현하는 이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을 쓰는 이들도 그곳에 가보지 않은 채 저술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글도, 시각적 재현도 상상력을 통해 지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식물의 경우 열대의 경관으로 보이는 배경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메리카와 연관 지을 만한 구체적인 나무나 식생, 식물 자원들은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속성으로 안착하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데 보스의 알레고리(그림 7)에서 고무 수액을 채취하는 듯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시 고무나무의 형태가 정확히 반영된 것은 아니다.

### 3. 체사레 리파가 제시한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표준 도상

16-17세기에는 상징집(emblem book)이 유행하여 도덕과 처세, 종교, 정치와 제왕학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각 항목은 상징적 의미를 담은 도상과 함께 제시되었다. 체사레 리파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치를 모두 의인화된 알레고리로 제시한 『이코놀로지아(Iconologia)』(1593)를 ‘도상학 사전’으로서 출간하게 된다. 이 초판은 텍스트로만 600여개의 알레고리를 다루며 4대륙 알레고리도 포함시켰고, 1603년 판에는 알레고리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일부 알레고리에 도판이 첨부된다.<sup>33)</sup> 1603년 판본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세계(mondo)라는 큰 범주를 알레고리로 제시한 다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순으로 배치하였다. 여기서 리파는 아메리카의 핵심 도상적 요소로 벌거벗은 몸, 머리의 깃털 장식, 왼손에는 활, 오른손에는 화살, 옆구리에는 화살통, 발끝에는 화살이 관통한 사람 머리,

33) Iconologia di Cesare Ripa, “L’iconologia,” <https://limes.cfs.unipi.it/allegorieripa/liconologia/> (검색일: 2026. 08. 26.)

바닥에는 매우 큰 도마뱀<sup>34)</sup>이 있을 것을 규정해두었고, 벌거벗었지만 베일을 통해 성기를 가릴 것, 화살이 관통한 머리는 식인 관습을 의미한다는 것, 거대한 도마뱀은 동물과 사람도 집어삼킨다고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Ripa 1603:330-339). 앞서 살펴본 갈레의 알레고리(그림 8)는 배경이 제거되어 매우 단순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리파의 알레고리의 구성과 구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 갈레의 『프로스포그라피아』 자체도 『이코놀로지아』에 선행하는 상징집으로서 둘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22년 리파가 사망한 뒤 저자의 유고를 반영한 증보판이 1625년에 출간되었으며, 1603년 판에서 1625년 판까지 3종류의 아메리카 알레고리 판화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그림 11. 『이코놀로지아』 1603년, 1611년, 1618년 판에 사용된 아메리카 알레고리

34) 이탈리아어 원문에는 “루체르톨라[도마뱀], 혹은 매우 큰 리구로(una lucertola, ovvero un liguro di smisurata grandezza)”라고 되어 있다. 리구로는 루체르톨라와 어원은 같으나 오늘날에는 사라진 단어이다. 콜럼버스는 1차 항해에서 이구아나를 ‘큰 뱀’으로 기록하며 기존 파충류 범주를 통해 이해하였다. 이후 앨리게이터 악어, 카이만 악어 등 더 큰 파충류가 등장하면서 아메리카 알레고리에 악어 도상이 등장한다. 그림 11에서 아메리카의 발치에 놓인 파충류를 각각 살펴보면, 이구아나, 도마뱀, 악어가 조금씩 섞여 있다. 유럽의 도마뱀, 아프리카의 나일 악어, 드래곤 등 실제 동물과 상상동물, 이국의 동물을 기준삼아 신대륙의 파충류를 인식하다 보니 이러한 모호함이 만들어진 듯하다. 스페인어로 도마뱀을 뜻하는 엘 라가르토(el lagarto)가 앨리게이터(alligator) 악어의 어원이 된 것은 신대륙 파충류를 인식하는 초기의 혼선을 잘 보여주는 일례이다.

35) Iconologia di Cesare Ripa, “America 1603,” <https://limes.cfs.unipi.it/allegorieripa/america-2/> (검색일: 2026. 08. 26.)

리파는 아메리카 알레고리에서 도마뱀에 준하는 동물을 배치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1603년 도판의 동물은 뱀도 아니고 이구아나도 아닌 모호한 모습이다. 1611년 도판에서는 악어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1618년 도판에서는 악어와 이구아나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여러 단어와 실제 대상과의 불일치, 시각적 재현 과정의 시행착오 속에서 악어는 이후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동물로 자리 잡게 된다.

리파의 책은 큰 인기를 누리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결과적으로 표준화된 아메리카 알레고리를 제시하게 된 셈이다. 앞서 살펴본 9개의 알레고리는 대부분 4대륙 알레고리의 일부로서 제작되었으나 제각각이다. 스트라다누스의 것처럼 4대륙의 일부가 아니라 근대의 가장 중요한 발명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으며, 반 데 파세의 경우 화면 전체에 여러 도상적 요소들을 배치하여 매우 촘촘하게 구성하였다. 헤라르츠는 아메리카 알레고리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로서의 아메리카 원주민 2명, 영국에 끌려온 이누이트인 3명을 그려 넣어 아메리카의 알레고리적 재현과 실제 원주민들을 동일한 차원에 두었다. 이렇게 아메리카 알레고리 구현을 두고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리파는 아메리카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표준으로 제시하였고, 이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반복될 전형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땅과 영토에 대한 유럽의 의인화 알레고리 전통을 검토하고 1570년 오르텔리우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안트베르펜의 판화가 집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중심으로 초기 아메리카 알레고리 형성의 맥락과 구체적인 작품들을 고찰하였다.

이후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도상적 요소를 나체와 신체 장식, 식인과 생활상, 자연과 동식물로 범주를 나누어 분석하고 종합하였으며, 콜럼

버스의 1차 항해 기록을 위시하여 여러 식민지 시대의 연대기와 여행 기록 등을 참고하여 도상 형성 분석에 구체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아메리카 알레고리의 가장 중요한 도상적 특징은 나체와 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의 1차 항해 기록부터 나체와 식인은 매우 강조되었으며, 판화나 그림 등 아메리카에 대한 시각적 표현에서 일찍 등장하였고 알레고리에도 반영되었다. 벚은 몸은 여러 깃털 장식과 활과 화살, 창, 곤봉 등 무기를 갖추어 표현되며, 아메리카가 여성화된 알레고리로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아마존 신화가 투사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과 동식물상에서는 앵무새, 아르마디요, 개미핥기, 나무늘보, 악어 등 실제 아메리카의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실제와 환상이 섞인 상상동물도 종종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물의 표현에 있어서는 고무를 채취하는 듯한 장면 외에는 아메리카의 고유한 식물상이 제대로 반영된 것을 찾기 힘들었다. 초기 알레고리의 여러 가지 도상적·구도적 실험들은 체사레 리파의 『이코놀로지아』를 통해 표준 도상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는 이후 아메리카 알레고리 표현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4대륙 알레고리는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이 유럽인들의 세계 인식에 새로 들어왔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4대륙 간의 관계에서 유럽을 최상부에 두고 다른 대륙들을 서열화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되었다. 최초의 4대륙 알레고리인 오르텔리우스의 지도첩 속표지에서 문명을 상징하는 유럽의 지구본과 아메리카의 손에 들린 인간의 잘린 머리가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이후 4대륙 알레고리는 우월한 유럽의 지배와 나머지 대륙의 종속을 더욱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sup>36)</sup>

36) 프란스 프랑켄(Frans Francken) 2세가 그린 「카를5세 황제의 브뤼셀 퇴위 알레고리」(ca.1635-1640)는 카를 5세가 퇴임하며 동생 페르디난드에게 신성로마제국을 물려주고, 아들 펠리페 2세에게 스페인과 아메리카 식민지, 네덜란드를 물려주는 장면을 담았다. 카를 5세의 시선 기준 왼쪽에 펠리페 2세와 그의 통치에 속하는 여러 유럽 영토와 가신들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으로 공물을 바치는 아메

신대륙 등장 이후 4대륙 구도를 시각적 알레고리로 구현해내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였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각각 독자적인 특징을 담아 알레고리가 만들어졌다고 여기기 쉽지만 각 대륙의 속성들은 문명과 야만, 대륙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위계를 주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되었으며, 특히 아메리카를 특징짓는 나체와 식인 모티프는 과장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4대륙 알레고리는 16세기 후반에 처음 고안된 이후 3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지도책이나 판화, 회화 등 평면적인 표현을 벗어나 건물의 내부 장식, 조상, 병풍, 태피스트리, 도자기 등으로도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는 아메리카로도 이식된다.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식된 4대륙 알레고리 모티프는 현지화된 독특한 지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sup>37)</sup>

이 연구를 통해 4대륙 알레고리 구도 속 아메리카 알레고리는 매우 방대한 주제이며, 아직 탐구되지 않은 많은 연구 영역과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런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아메리카 대륙이 4대륙 위계에서 어느 지점에 속하였는지, 또 유럽인들이 어떤 의도와 관점에서 이를 구축하였는지 좀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오랜 시간 동안 예술적 표현이라는 옷을 입고 정형화되어 생산된 이런 작품들과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담은 메시지가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 곳곳의 실제 풍경과 상상의 풍경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는지 더 깊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리카 · 아프리카 · 아시아 알레고리, 동물로는 아르마디요와 악어 머리가 그려져 있다. Rijksmuseum, “Allegorie op de troonsafstand van keizer Karel v te Brussel,” <https://www.rijksmuseum.nl/nl/collectie/object/Allegorie-op-de-troonsafstand-van-keizer-Karel-v-te-Brussel--2cb744f2469fe62413bb6aab920d4e03> (검색일: 2026. 08. 31.)

37) 가톨릭의 영향으로 나체도 배제하게 되고, 식인 등 야만적인 풍습들이 점차 도상에서 사라졌으며, 멕시코의 경우 필리핀에서 전파된 병풍에 4대륙 알레고리를 그린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Morales Folguera 2013).

## ■ 참고문헌

- 마벨 모라냐 지음, 우석균 옮김(2021), 「시각적 질서, 식민주의, 근대성: 서구 상상력 속의 아메리카 기입」, 『오르비스 테르티우스』, 그린비, 299-334.
- 아메리고 베스푸치 지음, 박병규 · 김선욱 옮김(2017), 「신세계」, 『항해와 정복』, 동명사, 105-118.
- 윤비(2010), 「유럽 여제(Europa Regina): 근대 초 의인화된 유럽의 알레고리와 정치적 레토릭」, 『한국정치학회보』 44(4), 25-44.
- 윤비(2014), 「4대륙의 알레고리와 패권의 프로파간다: 근대 유럽의 권력정치와 상징정치」, 『유럽연구』 32(4), 279-306.
- 체사레 리파 지음, 김은영 옮김(2007), 『이코놀로지아』, 루비박스 출판사.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지음, 정승희 옮김(2022), 『콜럼버스 항해일지』, 나남.
- 크리스티앙 그라탈루 지음, 이대희 · 류지석 옮김(2010), 『대륙의 발명』, 에코리브르.
- Fernández de Oviedo, Gonzalo(1851), *Historia general y natural de las Indias I*, Madrid: La imprenta de la Real Academia de la Historia.
- Fernández Muñoz, Yolanda(2025), “América tiene imagen de mujer. Algunos ejemplos de los siglos XVI al XIX”, *POTESTAS* 26, 79-106.
- Léry, Jean de(1992), *History of a Voyage to the Land of Brazil*, trans. by Janet Whatle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venson, Jay A.(1991), *Circa 1492: Art in the Age of Explo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ffei, Giovanni Pietro(1605), *Historiarum Indicarum*, Antwerp: ad insigne duarum Ciconiarum. <https://play.google.com/books/reader?id=U2hGAAAAcAAJ&pg=GBS.PP1&hl=ko>

- Morales Folguera, José Miguel(2013), “La iconografía de los cuatro continentes. Creación de los modelos en Europa y su traslado a Hispanoamérica,” *Palabras, símbolos, emblemas las estructuras gráficas de la representación*, ed. by Ana Martínez Pereira et al., Madrid: Turpin Editores, 399-410.
- Ortelius, Abraham(1570), *Theatrum Orbis Terrarum*, Antwerp: Gilles Copenius Diestensis. <https://archive.org/details/theatrumorbister00orte/page/n177/mode/2up>
- Partridge, Loren(1995), “The Room of Maps at Caprarola, 1573-75,” *The Art Bulletin* 77(3), 413-444.
- Ramírez-Alvarado, Mar(2022), “Imagen y construcción de identidades: el framing visual en las imágenes alegóricas del ‘Nuevo Mundo’,” *Universum* 37(1), 109-133.
- Ripa, Cesare(1603), *Iconologia overo descrittione di diverse imagini*, Roma: Appresso Lepido Facij. [https://archive.org/details/bub\\_gb\\_7wZZqex67xgC](https://archive.org/details/bub_gb_7wZZqex67xgC)
- Rubiano, A. H.(2021), “La primera imagen pictórica de América en Europa: un detalle de la Resurrección de Pinturicchio en la Sala de los Misterios,” *H-ART. Revista de Historia, Teoría y Crítica de Arte* 8, 286-304. <https://doi.org/10.25025/hart08.2021.13>
- Waldseemüller, Martin(1907), *The Cosmographiae Introductio of Martin Waldseemüller in facsimile*, trans. by Edward Burke and Mario E. Cosenza, New York: The United States Catholic Historical Society. <https://archive.org/details/cosmographiaeint00walduoft/cosmographiaeint00walduoft/>

## 웹자료

- Google Arts and Culture, “Adoração dos Reis Magos,” <https://artsandculture.google.com/asset/adoration-of-the-magi-vasco-fernandes/ywFz7PTSYwA3oQ?hl=pt-pt> (검색일: 2026. 08. 10.)
- Iconologia di Cesare Ripa, “L’iconologia,” <https://limes.cfs.unipi.it/allegorieripa/iconologia/> (검색일: 2026. 08. 26.)
- Iconologia di Cesare Ripa, “America 1603,” <https://limes.cfs.unipi.it/allegorieripa/america-2/> (검색일: 2026. 08. 26.)
- Library of Congress, “Theater of the World,” <https://www.loc.gov/item/2021666800/> (검색일: 2026. 08. 15.)
- Metcalf, Alida C., “Figure 6.2. Johann Froschauer, Woodcut of South American Indians,” <https://acm5.blogs.rice.edu/figure-6-2/> (검색일: 2026. 08. 10.)
- Numista, “Aureus - Hadrian HISPANIA; Hispania,” <https://en.numista.com/256013> (검색일: 2026. 08. 10.)
- Rijksmuseum, “Allegorie op de troonsafstand van keizer Karel v te Brussel,” <https://www.rijksmuseum.nl/nl/collectie/object/Allegorie-op-de-troonsafstand-van-keizer-Karel-v-te-Brussel--2cb744f2469fe62413bb6aab920d4e03> (검색일: 2026. 08. 31.)
- Rijksmuseum, “Amerika,” <https://www.rijksmuseum.nl/en/collection/object/Amerika--7bcf963a85c76c81a30f73d0c76a0ef7> (검색일: 2026. 08. 2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43845> (검색일: 2026. 08. 1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70639> (검색일: 2026. 08. 20.)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420218> (검색일: 2026. 08. 15.)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llegory of America, from the Four Continents,”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749585> (검색일: 2026. 08. 15.)

Turkish Archaeological News, “Aphrodisias Museum,” <https://turkisharchaeonews.net/museum/aphrodisias-museum> (검색일: 2026. 08. 10.)

Victoria and Albert Museum, “Europe,” <https://collections.vam.ac.uk/item/O628622/europe-print-etienne-delaune/> (검색일: 2026. 08. 15.)

Wikipedia, “Johannes Schöner globe,” [https://en.wikipedia.org/wiki/Johannes\\_Sch%C3%B6ner\\_globe](https://en.wikipedia.org/wiki/Johannes_Sch%C3%B6ner_globe) (검색일: 2026. 08. 31.)

Wikimedia Commons, “World map - Room of Maps - Villa Farnese - Caprarola, Italy - DSC02398,”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rld\\_map\\_-\\_Room\\_of\\_Maps\\_-\\_Villa\\_Farnese\\_-\\_Caprarola,\\_Italy\\_-\\_DSC02398.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World_map_-_Room_of_Maps_-_Villa_Farnese_-_Caprarola,_Italy_-_DSC02398.jpg) (검색일: 2026. 08. 10.)

Wikimedia Commons, “Theatrum Orbis Terrarum Frontpag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atrum\\_Orbis\\_Terrarum\\_Frontpage.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heatrum_Orbis_Terrarum_Frontpage.jpg) (검색일: 2026. 08. 30.)

❖ ABSTRACT

## Early Allegorical Representations of America and the Formation of Iconographic Elements

Jung, Seungh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early representations of the allegory of America and their iconographic elements as they emerged within the “four continents allegory” motif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It analyzes nine such representations, beginning with the personification of America in Abraham Ortelius’s *Theatrum Orbis Terrarum* (1570). Their iconographic elements are examined under three categories: “nudity and bodily adornment,” “cannibalism and everyday life,” and “nature, flora, and fauna.”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defining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allegory of America are the representation of nudity and the motif of cannibalism. These features should be understood not as faithful reflections of the appearance and lifeways of Indigenous peoples but rather as selectively emphasized and distorted representations that placed America closer to savagery. The four continents allegory functioned as an ideological tool through which a Eurocentric hierarchical order was articulated in a world newly expanded by the “discovery” of the New World. As part of this allegorical system, the allegory of America continued to be reproduced for more than 300 years after it first emerged.

Keywords: personification of territory, New World, four continents allegory, allegory of America, Cesare Ripa

■ 논문투고일 : 2026. 09. 10

■ 심사완료일 : 2026. 10. 05

■ 게재확정일 : 2026. 10. 09